

신앙은 선물

신성근 신부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 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1,18)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시며, 우리 사람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로써 사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에페 2,18 참조). 그러면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1. 신앙이란?

신앙은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 신앙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친교가 시작되고 또 이 친교는 하느님을 뵈옵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즉 하느님과 완전한 친교를 영원히 이루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신앙은 하느님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느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을 받아들임은 곧 새 생명의 시작이다.

2. 신앙은 은총이며 선물

신앙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신다. 하느님은 당신에 관한 진리를 선포케하시고 또 청중이 이 진리를 인정케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계시 현장 5 참조).

하느님은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 사람이 인격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구원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현존하시고 또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현존하신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초대하신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시편 27,1)이시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믿는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노력의 목적이시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느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1요한 5,9)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그 바탕을 둔다. 신앙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

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7-8)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을 갖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기도와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도록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심으로 써, 말씀을 듣는 사람을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은 믿게 된다.

4. 신앙과 불신

신앙은 구원의 시작이다.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며 하느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마태 7,24-25)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고”(요한 1,8), 또 “모든 계시의 총만함인 신”(계시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다”(골로 1,15).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골로 2,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세주 하느님의 인자와 사랑이 나타났다.”(디도 3,4).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많다(마태 17,16 참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거절한다. 세상 죄악에 대한 격심한 반발로 하느님의 실재를 부정한다. 또 과학이 입증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루카 8,14)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그 탓을 면할 길이 없다(사목 19 참조). 하지만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바르지 못한 생활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교회는 답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데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다. 이로써 하느님과 인간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생명에로의 초대이고 시작이다. 그리고 신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총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자유로이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로 하느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거부는 그 탓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러한 불신자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자들의 바르

지 못한 생활에 대한 반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상의 선물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선 당하였습니다.”(1 티모 1,18-19) 신앙 안에서 살고,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항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야 하며, 주님께 신앙을 키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 신앙은 “사랑으로 행동하고”(갈라 5,6), 희망으로 지탱되며,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162항).